

안전이 최고!

# 손 베이는 사고가 잦은 식품 포장용 랩

## 성능이 향상돼 더 위험해진 장난감 총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식품 포장용 랩, 음식 재료를 분쇄하는 푸드 믹서, 귀여운 유아용 리류, 어린이가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의 용기, 어린이들이 즐겨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 등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위험 요소가 널려 있다. 사고 사례를 알아본다.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글/오승건(소비자정보센터)

### 푸드 믹서

장어탕을 하려고 장어를 삶은 후 갈기 위해 믹서에 넣고 뚜껑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작동한 배종숙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봉변을 당했다. 믹서가 작동하자 압력에 의해 뚜껑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튀어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 사고는 배씨가 장어를 삶아서 믹서에 넣고 분쇄하는 중에 내부 압력에 의해 뚜껑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손과 팔에 화상을 입게 된 것이다. 사고가 난 믹서는 수분이 적고 딱딱한 재료를 주로 분쇄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제품 사용설명서의 주의 표시에는 '육류나 마르고 딱딱한 재

료를 갈 때는 뚜껑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진동이 작아집니다'는 표시는 있지만 뜨거운 액체를 넣어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배씨가 믹서에 뜨거운 장어탕을 넣고 분쇄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사용 설명서에 빠져 있는 것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자에게 설명서의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소비자도 이러한 위험을 알고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식품 포장용 랩

주방에서 많이 쓰는 주방용품 중의 하나가 랩이다. 랩은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방심하면 랩을 절단하는 톱날에 다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정은영 씨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위해 용기에 랩을 씌우다가 랩에 달려 있는 톱날에 손을 베었다. 톱날 재질은 보통 금속이지만 재질이 플라스틱인 제



품도 판매된다.

툽날은 대부분 포장지 모서리에 달려 있어 재질에 관계없이 다치기 쉽다.

랩을 제조한 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씨가 손등을 베인 제품은 99년 초에 단종된 제품으로 현재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고 한다.

식품 포장용 랩은 제품에 톽날이 부착돼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자를 수 있다. 하지만 톽날이 외부에 돌출돼 사용중에 다칠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용중에는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 유아용 의류

유아용 의류를 살펴보면 리본 등의 장식품이 많이 달려 있다. 이런 장식품은 예쁘고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달지만 다칠 위험이 있는 편으로 처리한 제품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은경 씨가 산 유아용 의류도 앞면에 리본 장식이 달린 제품이다. 리본을 옷 편으로 달아 아이가 찢릴 위험이 있었다. 리본 장식도 옷 편으로 달 것이 아니라 다칠 위험이 없는 똑딱단추 등으로 처리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씨가 말한 원피스를 확인할 결과 큰 위험성은 없었으나 아이의 손 동작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옷 편으로 달기보다는 보다 안전한 부품으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안전성이다. 유아는 어른



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잘하므로 옷을 구입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 아이스크림 용기

부드럽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지만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다. 대용량의 아이스크림을 담은 통의 가장자리에 손을 다치는 경우도 있다.

이수진 어린이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서 꺼내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의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베었다. 아이스크림 용기는 딱딱한데다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지 않아 손을 다친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이다. 사소한 것이지만 용기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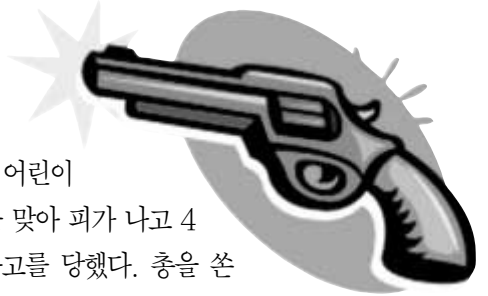
## 장난감 총

김주현 어린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어린이가 쏜 장난감 총알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나고 4바늘이나 꿰매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총을 쏘 어린이는 달아나 누가 쏘지도 모르는 상태다.

일부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는 서바이벌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난감 총을 가지지 않은 어린이가 없을 정도다. 총알이 스치기만 해도 살갓이 벗겨지는 등 매우 위험하다.

총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놀이터에 나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살펴봤더니 중국 제품이 많았다고 한다. 경고문은 한문으로 돼 있어 어른들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장난감 총의 성능이 점점 강력해져 다칠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중론이다. 장난감 총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좀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㉞



XXX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안전성이다.

유아는 어른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잘하므로 옷을 한벌

구입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XXX